

83年 上半期 石油類 特消費税의 稅收현황

大韓石油協會 · 弘報室

「現代社會의 血液」이라고 불리우는 石油은 稅金을 만들어 내는 셈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石油에 관련, 부과되고 있는 租稅를 살펴 보면, 關稅, 附加價值稅, 特別消費稅등을 들 수 있다.

原油 및 석유제품의 수입시에 부과되는 關稅는 그 동안 비과세되어 왔으나, 지난 4월의 國內油價인하에 따른 稅收결함을 메꾸기 위해 기본세율 5%로 환원되었다.

지난 77년부터 석유류 전제품에 공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附加價值稅의 세율은 10%로 되어 있다.

또 지난 77년 附加價值稅制의 실시와 함께 이에 대한 補完稅로서 실시하고 있는 特別消費稅는 현재 揮發油, 輕油, LPG(액화석유가스) 등 3개 品目이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2월 6일 國內油價조정시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特別소비세율을 일부 조정하여 휘발유에 부과되는 特別소비세율을 일부 낮추고, 휘발유에 代替되는 LPG에 신규로 特別소비세를 부과하는 한편, 輕油에 부과되는 特別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즉 휘발유는 特別소비세율이 130%에서 100%로, 경유는 7%에서 9%로 조정되었고, LPG는 새로이 10% 特別소비세를 부과했다.

石油類 特別消費稅率

	基本稅率	實行稅率
揮發油	100%	100%
輕油	10%	9%
L P G	10%	10%

국제청자료를 의하면, 금년 상반기중 석유류 제품에 대한 特別소비세 징수실적은 종래의 패턴과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소비측면에서 營業용택시연료의 LPG化에 따라 휘발유 소

비가 크게 줄어든 대신 輕油와 LPG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油種別로 보면, 휘발유는 금년 상반기중 28만 6천 7백 9kl가 소비되어 작년 같은 기간의 85.3%에 머물렀고, 게다가 세율이 인하여 稅收는 작년 같은 기간의 74.4%에 그치는 부진상을 나타냈다.

반면에 경유소비량은 2백 70만 1천 68kl로 18%가 늘어났고, 稅收도 4백 82억 7천 5백만원으로 작년보다 33.7%나 더 늘어났다.

LPG의 경우 15만 5천 8백 41톤이 팔려 작년 같은 기간의 12만 5천 2백 54톤보다 24.4%나 늘어났고, 稅收도 73억 8천 6백만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가스보급확대정책으로 LPG부문의 稅收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우리 나라의 石油類稅는 從價稅로 되어 있어 油價가 인상될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으며, 국가경제의 기본적인 제도로써 他部門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附加價值稅나 방위세율 제외하면, 特別소비세의 과세품목과 그 세율이 특징적이다.

83年 上半期 特別消費稅 징수실적

(금액: 백만원)

品 目	단 位	83. 1~6월		82. 1~6월		증감률 (세액%)
		수 量	세 액	수 量	세 액	
휘발유	천kl	286	898	336	1,207	-25.6
경유	"	2,701	483	2,289	361	33.7
L P G	천t	156	74	125	-	-
승용차	대	50,169	228	29,452	129	76.7
냉장기	천대	504	249	339	166	49.5
컬러TV	"	969	352	593	321	9.4
설 탕	천t	182	268	162	629	- 0.5
청량음료	천병	799	190	666	149	97.8
기 타			764		564	36.1
計			3,587		3,206	11.9